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### 중국사과원, “2030년 중국 세계 최고령 국가될 것”

-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재정무역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<중국재정정책보고서 2010/2011>에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.
  - 이 보고서는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 기준 약 12%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, 향후 30년간 연평균 16.6%의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함.
  - 이는 최근 UN이 발표한 인구통계보고서에서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2040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약 28%에 달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과 맥락을 같이 함.
  
-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가 향후 노동인력 부족 및 양극화를 심화시켜 경제성장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고 고령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.
  - 매년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은 2013년을 기점으로 노동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고, 이는 1인당 GDP의 성장 둔화와 노인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공공부채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  - 이에 중국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최근들어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, 고령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아제한 정책을 고수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적극적인 고령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  -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고령화 상황 하에서 중국경제가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 질의 향상, 농촌부문 유희노동력의 도시 유입, 한 자녀 정책의 완화 등을 통해 고령화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동시에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자본집약적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성장패턴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음.

(동방조보, 법제일보, 9/13)